

물 위의 장관(長官)

투발루(Tuvalu)라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면적이 4번째로 작고 인구는 3번째로 적은 나라라고 합니다. 얼마전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유엔기후위기협약 당사국총회(COP26) 때문에 그 존재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COP26에서 투발루 장관의 수중 연설 영상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투발루의 사이먼 코페 외무장관은 투발루의 한 해변에서 물이 허벅지까지 차오른 상태로 수중에 연단을 세우고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수몰될 위기에 처한 나라의 현실을 세계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코페 장관의 뒤에는 과거 마른 대지 위에 세워져 있었을 시멘트 건축물의 하부가 물에 잠긴 모습도 보입니다. 해발고도가 평균 3m 정도인 투발루는 현재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 전체가 수몰될 수도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자체가 수몰되어 사라져 버린다면 그곳의 주민들은 결국 난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지금 세계 최대의 공통 의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극단적인 기상 변화에 대한 뉴스를 접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죠. 폭염과 혹한, 홍수와 가뭄, 잡히지 않는 산불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는 한편, 4계절이 뒤섞인 듯한 이상(異常) 고온과 저온을 겪고 있는 한국의 기후 변화도 체감되면서 한국 사회에도 기후 위기에 대한 자각이 이전보다는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난민'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크게 감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난민 문제는 기후위지만큼이나 세계 최대의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인도주의나 자국민 보호냐의 논쟁적 대립을 보여주지만 사실상 서구의 과거 식민 지배 역사, 그리고 글로벌한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내적인 차원에서도 가중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가 얽혀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문제가 한동안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난민'하면 주로 정치적 난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기후난민의 수적 규모는 우리가 더 이상 무감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습니다. 작년 통계 기준으로 2008년 이후 매해 2,170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해 왔다고 합니다. 기후위기가 가져올 변화를 추정한 여러 세계 기구들은 기후위기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기후재난에 따른 난민들의 규모가 2050년 최대 6억~7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기후재난으로 인한 난민 발생의 문제는 가난과 대체로 가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나라들은 사회적 생산성이 낮고 물질적 인프라가 적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 있는 개발도상국과 최빈국들입니다. 지난번 패스트패션 산업에 대한 글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해온 대표적인 나라로 지적했던 방글라데시는 기후재난에도 취약한 나라로도 유명하지요. 이상 홍수 사태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저지대 지역 주민들은 농토와 집터를 잃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남동쪽 벵골만의 쿠틀디아 섬은 지난 100년 동안 면적의 65%를 상실하고 인구의 60%가 도시로 이주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도시로 간 이재민들은 하층 노동자로서 도시의 높은 집세와 물가를 버티며 생존해야 하며, 물이 빠진 고향에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생계 수단이 없어진 마을에서 경제활동을 재기하기 어려워집니다. 기후재난은 이렇게 국가 내 난민을 만들기도 하고 극단적인 경우 국경을 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처럼 내전 발발 국가들이 발생시킨 난민들 정치적 분쟁의 희생양이라고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인종적·종교적 분쟁을 촉발한 핵심 원인으로 기후재난이 언급됩니다. 건조한 지역의 장기 가뭄에 따른 사막화 같은 기후재난이 경제를 망

가뜨리면서 기존의 종족 간 갈등이나 불평등 문제가 폭증시킨 것이죠. 특히 시리아처럼 가장 대표적인 난민 발생 지역의 사막화 문제는 이미 정치적 문제가 불거지기 수년 전부터 가장 궁극적인 사회 위협 원인으로 잠복되어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적인 상황은 사실상 기후난민들이 옮겨가는 주변의 나라들도 대부분 가난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가 난민 수용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뉴스는 쉽게 접하지만 사실 개도국이나 빈국에서 난민을 수용하며 나타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10년째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는 시리아의 이웃국인 터키, 베네수엘라 옆 나라 콜롬비아와 아프간 출신 난민들이 찾아가는 파키스탄, 남수단과 콩고민주공화국 옆의 우간다라고 합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곳 대부분이 개도국이다보니 일자리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해지기도 더 쉽습니다. 범죄 발생률도 높아지고 여론이 악화될 공산도 크겠죠.

기후위기는 “깨끗하고 푸른 강산”을 되돌리자는 단순한 감상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기후문제는 정치와 경제, 종교와 문화가 가장 거대하고 급박하게 뒤엉킨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제적 노동의 불평등에서 인종청소에 이르는 사태와 맞물려 있는 것이 기후위기 문제의 현주소입니다. 저 가난한 나라들은 기후위기에 책임이 거의 없는 국가들이라는 사실 또한 지금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고도 역설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세계 인구의 20%이하인 선진국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배출하지만 기후위기의 피해는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3%만을 배출하는 저위도 개발도상국의 약 10억 명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부정의(不正義)는 세계 저 먼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잘 들리지도 자각되지도 않은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역설적 상호작용이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생각해보게 합니다.